

어느 유지원 선생님이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유지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자라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누어 드린 종이에 그것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를테면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등 어머니들은 모두가 한 가지씩 바라는 인물상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좀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켜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용적으로 소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두가지 사건 즉,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사건이었다는게 중요한 점이구요, 이러한 사건들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해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통념들이 나와있고, 그 통념이 틀렸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고 계시요.

예수님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몇몇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죄지은게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얘기하

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실로암 망대 사건을 바로 언급하셨는데, 망대는 오늘날 보초를 서는 초소를 말합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의 남쪽 성벽과 동쪽 성벽이 합쳐지는 모퉁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성벽 위에 있던 초소가 특별한 이유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 사건 때문에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재, 즉 자연재해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재, 즉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도 참 많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빈도는 더 잦아지고 강도는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도 하지요) 아무튼, 그렇게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들이 뭔가 잘못된게 있으니까 그렇 일을 당했지...라고 여겼습니다. 가령, 대교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참변을 당한 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뭔가 남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건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측은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죄를 저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전에 뉴욕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환우들 병원 심방하는데 있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생업에서 은퇴들 하시고 심방부에 들어서 같이 병원심방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큰교회였으니까 그런 사역팀이 있었어요. 참 귀한 사역이죠. 대부분 좋으신데, 간혹가다가 아프신분한테 ‘회개해. 무슨 죄를 짓길래 이래?’ 하시는 경우가 신기하게도 잊혀질만 하면 꼭 한번씩 발생을 해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겐 은연중에 그런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옴의 친구들도 옴을 찾아와서는 첨에는 그를 위로하는 듯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니가 잘못된게 있으니까 이런 재앙을 만났

지' 라고 옳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죄의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나는 너보다 괜  
찮은 사람이어서 너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셨어  
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나는 괜찮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남을 정죄하는 일  
을 멈추고, 우리 각자를 돌이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벌받아야지요!” 사람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치고, 팔부러지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서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서 최후에 정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  
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에 대  
해서는 지나치게 정의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기 쉽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  
인들이 그러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천재 인재의 소식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때마다, 남 이야기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을 찾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은 멈추고, 오히려  
나의 말과 행실에 주의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삼년동안이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  
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내용인면서, 마태복음 21:18-22과 마가복음  
11:12-14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6절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  
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

있을까요? 사과밭에 사과 나무를 심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게 아닌가? 말이죠.

성서학자 가운데 T.W. Manson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밭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보통 무화과 나무들은 길가에서 야생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에 비해 포도원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알뜰한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거예요(6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열매 안 맺었다고 찍어 내버리라고 말한 주인이 야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물학적으로보면 무화과나무는 3년이 되면 성숙기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인이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무화과나무는 삼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과원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주도록 간청했습니다. 과원지기의 간청을 들은 주인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다는 뜻이었고 이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주인이 기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왜 사과가 안열리냐고 한게 아닙니다! 게다가 무화과 나무로부터 왜 열매가 이것밖에 안되냐고, 100개는 기대했는데, 1개밖에 안열렸다고 한것도 아니에요! 주인은 많은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1개라도 열매 맺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주인이 열매맺을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주여, 주여"라고 울부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복음과 빛과 사랑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거죠.

이에 대해서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찍어버리라!!!" 열매맺지 못하는 나무가 기대할 것은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원지기가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의 크신 중보자이시지요. 과원지기가 바란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이 기회는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새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비의 집행유예도 잠깐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가 조금 더 참으실 것과, 그가 항상 참으시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믿어주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기도해줌으로 집행유예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용서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회개 그리고 기도으로써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은 우리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멈추고, 대신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맺기를 바라시는 포도원지기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직도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